

春雪... 호랑이 잠시 쉬었다 가자



KIA-두산전... 프로야구 사상 처음 눈때문에 경기 취소

'춘설'(春雪)에 호랑이와 꿈의 대결이 취소됐다.

14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와의 시즌 4차전이 때 아닌 눈으로 취소됐다. 1982년 프로야구가 출범한 이후 프로야구 정규시즌 경기가 눈으로 취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잔뜩 흐린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등 오후 내내 날씨가 심상치 않았다.

홈팀 KIA에 이어 원정팀 두산의 훈련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쯤 잔뜩 흐려있던 하늘에서 조금씩 빙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차가운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빙방울은 이내 눈으로 바뀌었다.

조범현 감독과 이날 KBO 경기 운영위원으로 광주를 찾은 김재박 전 LG 감독은 당황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보며 날씨 변화를 지켜봤다. 식사를 마치고 덕아웃에 나온 KIA 선수들의 공통된 반응도 '4월에 무슨 눈이?'였다.

며칠 전 팀에 합류한 새 용병 라이트에게도 봄에 내리는 눈은 낯선 풍경이었다. 미국

텍사스 출신의 라이트는 "텍사스도 무쳐 춥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며 "경기하기에 날씨가 너무 춥다"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베테랑 이종범도 "19년째 야구를 하고 있지만 눈을 맞으면서 야구를 해본 적은 없다"며 "오늘 경기가 진행되면 눈을 맞으면서 하는 사상 첫 경기가 될 것이다"고 웃음을 보였다.

눈발이 깎어졌다 잠잠해졌다가 반복되면서 경기 취소 결정이 쉽게 내려지지 않았고, 하늘을 올려다 보던 선수들은 결국 실내 웨이트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기에 대비해

몸을 풀면서도 선수들은 혹시 모를 부상에 대한 염려로 '경기 취소'를 바라는 눈치였다.

하지만 많은 선수들과의 바람과 달리 경기에 나서기 위해 강한 의지를 보이는 선수도 있었다. 이날 선발로 예정된 이동현은 목록히 경기장으로 나가 캐치볼을 하며 미운 듣ungan을 준비했다.

그러나 이동현의 바람과 달리 눈이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경기 시작 21분 전인 오후 6시 9분 결국 경기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동현은 눈속에서도 공을 놓지 않으며 선발 출격의 의지를 보였지만 15일 KIA 선발은 윤석민이 예정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국이 쌀쌀한 날씨 속에 광주야구장에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두산과의 경기가 취소되자 팬들이 경기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기아차, 주신수에 쏘렌토R 전달

기아자동차는 미국에서 올해 초 출시한 쏘렌토R(수출명: 쏘렌토)를 홍보하기 위해 메이저리거 주신수 선수에게 이 차를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아차는 13일(현지 시간) 미국 오하이오 주 기아차 딜러점인 멘토기아(Mentor Kia)

에서 주신수에게 차량을 전달했다.

기아차는 2008년 주신수를 미국 현지 기아차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모하비(수출명: 보레고)를 지원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그랜드 카니발(수출명: 세도나)을 제공한 바 있다.

주신수는 "올해도 좋은 활동을 펼치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기아차와 쏘렌토R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미국프로야구 뉴욕 양키스 박찬호가 14일(한국시간) 뉴욕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린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오브 애너하임과의 홈 개막전에서 경기 시작 전 입장하고 있다.

왕년의 홈런왕 김봉현

무등골 찾아 후배 격려

'왕년의 홈런왕' 김봉현이 무등골을 찾았다.

14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 KIA의 전신 헤텔의 '불꽃타선' 중심에 있던 홈런왕 김봉현이 무등경기장에 발걸음을 했다.

현재 극동대 사회체육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 김봉현은 동신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이기도 하다. 논문관계로 옛 터전을 찾은 김 교수는 야구 후배들을 만나기 위해 잠시 경기장을 찾았다.

김 교수는 "지난해 후배들이 12년만의 우승을 일궈내면서 타

이거즈 원로로 조범현 감독 못지않게 많은 인터뷰를 했다"며 "올해도 좋은 성적을 부탁한다"고 조범현 감독에게 덕담을 건넸다.

타이거즈 시절 27번을 달았던 김 교수는 자신의 배번을 물려받은 김상현에게는 "지난해 홈런왕 다운 모습을 보여주라"고

격려했다.

김 교수는 일정상 후배들의 경기는 지켜보지 못했지만 추억의 장소를 찾아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김 교수는 "경기장을 자주 찾지는 못하지만 중계를 통해서라도 후배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며 "우승을 통해 선수단이 얻는 힘은 상당하다. 올해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을 시즌 KIA의 선전을 예상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찬호 안방 데뷔전 합격투

구속 150km대... 201닝 1실점

미국프로야구 뉴욕 양키스의 박찬호(37)가 홈 개막전에 등판해 201닝을 무난하게 막고 승리에 이바지했다.

박찬호는 14일(한국시간) 뉴욕 브루크스 뉴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린 로스앤젤레스에

인절스 오브 애너하임과 경기에 5-0으로 앞선 7회초 등판해 201닝 동안 솔로 홈런을 포함해 2안타를 맞고 1점을 내줬다.

지난 8일 보스턴과 경기에서 첫 승을 거둔 후 6일 만이며 세 번째 등판. 점수 차가 커 헐드를 올리지 못했지만 평균자책점을 4.91에서 4.76으로 끌어내렸다.

/연합뉴스

선발 앤디 페티트에 이어 두 번째 투수로 등판한 박찬호는 2이닝 동안 8명의 타자를 상대로 36개의 공을 던졌으며 26개가 스트라이크였다. 실투로 솔로 홈런을 맞긴 했지만 삼진도 하나 잡았다. 박찬호는 시속 150km 구구와 120~130km대 커브, 슬라이더를 섞어 던졌다. 박찬호는 9회초 수비 때 데이비드 로버트슨으로 교체됐다.

양키스는 선발 투수 페티트의 6이닝 무실점 후투와 데릭 저터와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2타점씩 뽑아낸 활약에 힘입어 에인절스에 7-5로 이겼다.

/연합뉴스

서희경 상큼한 출발

롯데마트 오픈 1R 2타차 2위

국내대회 상금왕 2연패 시동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IA클래스를 제패한 서희경(24·하이트)이 올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국내 대회에서 상금왕 2연패를 향해 시동을 걸었다.

서희경은 14일 제주 롯데마트카이힐 골프장(파72·6천254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제3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J 골프 시리즈 1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쳐 장정(30·기업은행), 임성아(26·현대캐피탈)와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

선두는 지난해 힐스테이트 서울경제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던 이현주(21·동아화학원).

이현주는 서희경에 2타 앞선 4언더파 68타를 뽑아냈다. 지난해 상금왕 등 4개 부문의 상을 훔친 서희경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개 대회에 참가하느라 시즌 개막전 김영주골프 오픈에 참가하지 못했다. 롯데마트 여자오픈이 올해 첫 출전한 국내 대회. 초청선수로 출전한 LPGA 투어 KIA클래스에서 우승, 한국여자골프의 위상을 드높인 서희경은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차분히 타수를 줄여 나가 한 때 선두로 올라

섰지만 15번홀(파5)에서 나온 트리플보기로 1타 차로 밀렸다.

서희경은 전반에 2타를 줄이고 11번홀과 12번홀(이상 파4)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갔다. 하지만 15번홀에서 138야드를 남기고 6번 아이언으로 친 세 번째 샷이 그린 왼쪽 둔덕을 맞고 가시밭 속으로 굴러들어갔다.

1벌타를 받고 다섯번째 샷을 한 서희경은 결국 3타를 넣고 돌아웃쳤다. 하지만 서희경은 18번홀(파5)에서 114야드를 남기고 8번 아이언으로 친 세 번째 샷을 흘 바로 옆에 불여 가볍게 버디를 잡아냈다.

/연합뉴스

골프황제 우즈 US오픈 출전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 미국오픈에 출전한다.

US오픈을 주관하는 미국골프협회(USGA)는 시즌 첫 메이저대회 마스터스에서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렀던 우즈가 US오픈 출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4일(이하 한국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올해 US오픈은 6월 17일부터 나흘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

/연합뉴스

서희경이 14일 제주도 스카이힐 제주 골프코스에서 열린 제3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1라운드 6번홀에서 티샷 하고 있다.

서희경은 서희경에 2타 앞선 4언더파 68타를 뽑아냈다. 지난해 상금왕 등 4개 부문의 상을 훔친 서희경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개 대회에 참가하느라 시즌 개막전 김영주골프 오픈에 참가하지 못했다. 롯데마트 여자오픈이 올해 첫 출전한 국내 대회. 초청선수로 출전한 LPGA 투어 KIA클래스에서 우승, 한국여자골프의 위상을 드높인 서희경은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차분히 타수를 줄여 나가 한 때 선두로 올라

광주일고는 14일 오후 학교 체육관에서 제64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우승 환영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안순일 광주 시교육감(앞줄 왼쪽에서 일곱번째)과 김병채 교장(여덟번째)을 비롯해 야구부, 재학생, 학부모 등 700여명이 참석해 축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일고 황금사자기 우승 환영식

광주일고는 14일 오후 5시 학교 체육관에서 제64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 우승 환영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광주일고 선수단의 우승 기와 우승컵 반납에 이어 김병채 교장이 선수단에 금메달을 걸어주면서 환영식

2학년 재학생 등 700여명이 참석해 야구부의 우승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광주일고 선수단의 우승 기와 우승컵 반납에 이어 김병채 교장이 선수단에 금메달을 걸어주면서 환영식

안순일 교육감 등 700여명

대회통산 5번째 우승 축하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다. 광주일고 야구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잠실구장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장충고를 1-0으로 꺾고 대회 통산 5번째의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6홀 도는 골프대회 LPGA '모조' 대회 자메이카서 개막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모조6 대회가 15일 밤(한국시간) 자메이카 몬테고베이의 시나몬힐 골프장에서 이틀간 열린다.

총상금 100만 달러가 걸린 이 대회는 예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독특한 형식으로 진행돼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출전 선수도 16명에 불과하고 매치플레이 형식을 벌린 조별리그와 토너먼트로 우승 자를 가린다.

한국 선수로는 최나연(23·SK텔레콤),

1회전이 끝나면 1회전 성적을 바탕으

로 1위부터 16위까지 순위를 정해 다시 상위 8명이 순서대로 자신의 맞대결 상대를 고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선수당 세 경기를 치러 상위 8명이 다음날 열리는 토너먼트에 나간다. 이를테면 첫날 1위와 8위, 2위와 7위 등이 8강 토너먼트부터 치러 우승자가 결정된다. 대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기준의 18홀 점규대회가 마라톤이라면 이 대회는 단거리 경주"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